1만 동국인 동시 수계…청년 전법 새 장 열다

동국대 건학위 9월 17일 '영캠프'
'청년 전법 축제'로 완벽 자리매김
신청 1분 만에 매진…인기 '실감'

전계대화상 진우 스님, 오계 설해
152회 지역불자육성장학 수여도
청년 문화 페스티벌로 대미 장식



9월 17일 열린 동국대 영캠프에서 전계대화상으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학생들에게 오계를 설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1만여 동국인들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청년 불자로 거듭났다. 1만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수계받음으로써 동국대는 청년 전법의 새 장을 열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윤재웅)는 9월 17일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6 Young Camp(이하 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했다.

2024년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함께 처음 개최된 영캠프는 힙한 불교의 열기를 잇고, '청년불자 씨앗'을 심는 청년세대 전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남긴 '청년전법이 희망이다'라는 원력을 이어받아 마련됐다.

영캠프는 처음 시작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으나 올해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으로 옮겨 진행됐다. 이는 더 많은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역시 대규모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전법 축제인 만큼 재학생들의 관심도 시작 전부터 뜨거웠다. 실제 9월 3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2026 영캠프' 참가 신청은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지난해 참가 신청이 2분 만에 마감된 데 이어, 올해는 마감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며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행사 당일에도 시작 2시간 전부터 대운동장에 학생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1시간 전에 이미 행사장은 만석이 됐다.

이날 영캠프의 하이라이트는 1만여 재학생들이 참여한 수계법회였다. 수계법회 전계대화상은 영캠프에 처음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았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교육아사리,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이 갈마아사리로 참여했다. 3사7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비롯한 법인 이사 원명·종호·진화·성행·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장 각진 스님, 법인 감사 법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이 참여했다.

수계식에서는 동국대 한국음악과 오케스트라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학인 스님 등 150여 명이 '우리말 예불문(오분향·칠정례)'·삼귀의례·반야심경 봉독 등을 진행해 불교의식의 장엄함을 학생들에게 선보였다.

법상에 오른 전계대화상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을 얻는 것"이라며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고 수계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수계 대중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덕을 지어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는 오계를 설했다.

계를 수지한 학생들은 150여 스님들의 연비의식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했다. 스님들은 1만여 학생들에게 연비 대신에 염주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연비사 스님이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연비는 단주를 채워주는 것으로 대체했다.



외국인 유학생 불교동아리 글로불동 회원들이 합장하고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연비를 마친 대중에게는 계첩이 수여됐다. 계첩은 학생들을 대표해 이승준 영캠프학생기획위원회 단장과 문수연 부단장이 수여받았다.

계를 수지한 대중들은 발원문을 봉독하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수계대중은 "이제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올바른 말과 밝은 슬기로 빛나는 생활을 열어가겠다"고 서원했다.

기금 전달식에서는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오준세 경희알미늄 대표와 금강성 보살이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으로 3억원을 전달했다. 이어진 '제152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김현기 사범대학 불교동아리 불사대 회장(체육교육 2학년)과 양은정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회장(경영정보 3학년)이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수계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대표로 장학금을 받은 김현기 회장은 "거창한 것보다는 제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불자가 되고 싶다"면서 "매일 정진하는 청년 불자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은정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다잡을 때 혹은 공부를 할 때 마음이 흔들려서 집중이 안 될 때 정말 도움이 된다"면서 "오늘 이 수계식을 통해서 불교를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불자가 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영캠프 대미는 청년 불자들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 장식했다. 행사에서는 부제인 '번뇌를 씻어내다'의 의미를 담아 워터캐논을 설치·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축하공연으로는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국민 아이돌로 급부상한 리센느를 비롯해 랩퍼이자 프로듀서인 지코, 다국적 보이그룹 NCT드림이 참여해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불교계,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지속'

9월 15일, 긴급구호단 활동 브리핑
중신회 등 피해 복구 기금 전달도

네팔 대홍수 현장을 찾은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한 가운데 겨울철 방한용품 지원 등 추가 구호 활동을 추진한다.

조계종 긴급구호단(단장 선일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9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활동 내용과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브리핑에는 긴급구호단장 선일 스님과 김정호 총무원 사회부 차장, 박성주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 한은영 아름다운동행 주임, 김현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사업부장이 참석했다.

선일 스님은 현지 상황에 대해 "토사물이 내려와 주민들의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돼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유실된 도로가 많아 산악지대로 이동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 2명과 사위를 잃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장을 마주하게 됐다"며 "물품 지원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정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호단은 네팔 불교계에서도 이재민 지원이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현재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비롯한 이재민들은 카트만두 내 사원 2곳에 머물며 보호받고 있다.

구호단은 향후 모금 상황과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규모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산악지대의 추운 기후 특성을 고려해 담요 등 방한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지역의 주거지를 강 상류로 이전하고, 강 하류에 위치한 학교·관공서 등 주요 인프라 재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구호단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네팔 라수와 둔체 지역과 베트라와티 마을을 찾아 1차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9월 5일 먼저 출발한 선발대가 현지 NGO와 함께 피해 현황과 구호 수요를 조사한 뒤 9월 8일 출국한 본대와 합류해 물품을 전달했다. 9월 10일에는 네팔 라수와 둔체 지역 850가구에 쌀, 렌틸콩, 식용유, 과자 등 20일분의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다. 베트라와티 마을에는 대홍수 잔해 정리에 필요한 철거 공구와 운반 장비, 안전 보호구 등 복구 물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기금 전달도 잇따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9월 17일,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 스님)는 9월 16일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각각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 해광사(주지 태공 스님)도 9월 15일 피해 지원에 동참하고자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 1000만원을 구호 기금으로 기탁했다.

진우 스님은 "네팔은 부처님의 고향인데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불자들의 정성이 피해 복구와 구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10월 31일까지 네팔 대홍수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농협은행 301-0366-4563-11 아름다운동행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9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팔 대홍수 현장 1차 활동 내용과 향후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